

‘원형보존 vs 수심·수량 조정’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은

주민 반발에 광주시 원형보존 검토했지만 해법 찾지못해 “사업 지체시 1지구 특례사업 전체 영향...피소 가능성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주민요구대로 원형보존을 검토했던 광주시가 숙고 끝에 기존 안인 수심·수량 조정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풍암호수는 1956년 서창 일대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저수지로 지어졌다. 그러나 도심개발과 함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속 대표 친수 공간으로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 내 각종 오염원의 영향으로 여름철 녹조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질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6등급 수준이다.

지지부진하던 수질 개선 논의는 호수를 품은 중앙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광주시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사업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59㎡·비공원시설 19만5456㎡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지의 8%에 해당하는 비공원 부지엔 총 2779가구·27층 규모의 아파트가, 공원 부지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사업은 공원 부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공원 부지는 사업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 시민에게 환원한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준공일은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풍암호수 수질 개선·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우선 수질 환경전문가 4명·공무원 4명·민간사업자 2명·농어촌공사 1명이 참여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전담팀(TF)을 꾸렸다.

TF는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공식 회의(6회)와 실무자 회의(14회) 등을 거쳐 자연정화식 수질 개선안을 내놨다.

수위를 줄이고, 주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TF 개선안대로라면 호수 평균 수심은 현재 2.8m(최고 수심 4.2m)에서 1.5m(최고 수심 2.5m)로 낮아진다. 매일 지하수 관정 등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이 유입된다. 또 ▲호수 주변 산책로 폭 현재 4m에서 8m로 확장 ▲빛물 배수시설 정비 ▲오염 발생원 숲 지대 장미원 이전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대 주민은 개선안에 반대하며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합세했다.

올해 2월 주민협의체는 8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풍암호수 원형보존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면적·수심·담수량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요구였다.

주민협의체와 면담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라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특정 금액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이를 이용, 원형보존에 따른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법률 검토 결과 법적 절차 등 정당성없이 현금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또다른 서류 절차가 필요한 데 이 기간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이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자칫



광주 서구 풍암호수 전경. (사진=광주 서구 제공)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고심 끝에 TF 개선안으로 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주민협의체는 광주시가 원형보존안을 번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집행부는 “광주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동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주민에게 약속하고 협약까지 체결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뒤집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체회의를 열어 대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시장 간 면

담에서 나온 시장 발언은 ‘나는 TF안이 가장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형보존이나 현상유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주민 의견을 고려, 그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수질개선안을 도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질개선 사업이 지체되면 특례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소 등 여러 위험 부담이 커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인천 청라나 송도, 세종호수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용일 기자



전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직접 체험하세요”

오늘부터 이틀간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서 100여종 전시·체험 진행

전남도는 오는 12일부터 2일간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에선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도록 상담과 신청 안내를 함께 지원한다.

전시회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업체 25개 기업이 참여해 시각장애 58종, 지체·뇌병변 장애 19종, 청각·언어 장애 23종 등 총

100여종의 제품을 소개한다.

전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전남도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at4u.or.kr)이나 시·군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상생합시다”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맞손

동반성장 MOU...지역 중기 참여 상생박람회 개최도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근)와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종모)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8일 광

주도시공사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동반성장 MOU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대

응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공동 사업 발굴·실행 ▲업무 관련 전문기술 공유와 인적교류 활성화 ▲ESG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공구매 활성화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전남 미래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2023 광주·전남 상생 공공구매박람회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을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30개사(광주 15, 전남 15)가 참여했고,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기업, 혁신·창업·벤처기업 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군 공고 제2023-840호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화순군수

1. 개최목적
○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6. 30(금) 14:00 ~ 15:00
○ 장 소 :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3층)
3. 계획의 개요
○ 과 업 명 :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작성 용역
○ 과업범위 : 화순군 전지역(1개 읍, 12개 면 786.91km²)
○ 과업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대상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자연재해 유형
4.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화순군 재난안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 2023. 7. 4 (화)까지
○ 의견제출처 : 화순군 재난안전과 /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 우편 및 방문제출 :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
· 이메일 : lamsaece@korea.kr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061-379-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7배	2.1배	2.7배
3분위			48,103원
2분위			26,697원
1분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